굴착공사, 도시가스 사고위험 높다!

산자부, 2002년 가스 사고 16.0% 감소 … LPG·고압가스 사고는 줄어

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157건으로 1998년 397건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6.0% 줄어들어 가스 사고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도시가스 사고는 크게 증가했으며,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18.5% 증가한 32명에 이르렀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2년 발생한 가스 사고는 총 157건으로 2001년 170건에 비해 7.6%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.

LP가스 사고가 전체의 75.1%인 118건에 이르렀으며 도시가스 31건(19.7%), 고압가스 8건(5.1%)으로 각각 조사됐다. LP가스 사고는 2001년보다 12.6% 감소했고 고압가스 사고는 52.9% 대폭 감소한 반면, 도시가스 사고는 72.2% 증가한 것이다.

전체 가스 사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LP가스 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은 2001년 11월 전국적으로 확대·시행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체결율이 99.9%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또 LP가스 및 고압가스 사고가 줄어든 것은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대책이 수립됐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LP가스 및 고압가스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.

다만, 도시가스 사고가 증가한 것은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중 도시가스 굴착공사가 억제됐다가 대회 이후 단기간 내에 공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다른 공사에 의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.

가스 사고 원인분석

구 분	1998	1999	2000	2001	2002	증감률
사용자취급부주의	57	48	34	36	38	5.6
공급자취급부주의	46	29	21	26	11	▽57.7
타공사	18	4	6	6	13	116.6
시설미비	65	50	49	35	36	2.8
고의사고	118	62	36	43	38	▽11.6
제품불량	43	16	21	15	17	13.3
기 타	50	15	9	9	4	▽55.5
합 계	397	224	176	170	157	▽7.6

정부는 도로굴착 허가시 일선 행정기관을 상대로 주변 가스 배관 매설상황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행정지시하고,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는 배관 점검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토록 지도할 계획이다.

한편, LP가스 배달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 가스공급자 안전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으로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2001년보다 57.7% 감소하고 고의사고도 11.6% 감소했으나, 사용자 취급부주의는 5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가정불화에 의한 자해, 가해, 일부계층의 권익요구를 위한 시위용 가스누출 및 방화 등 고의적으로 가스를 누출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전체 사고의 28.8%를 차지하고 있었다.

보일러가스 중독, 고의사고, 마감처리 미조치 등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999년과 2000년, 2001년 각각 27명이었던데 반해, 2002년 32명으로 늘어났다. 부상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2001년보다 19.0% 감소한 247명으로 파악됐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3/01/24>